

투데이 칼럼

무장포고문 속에 신재호 관소리가 있다

무장포고문은 1894년 3월20일 고창 무장현 구수내 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인물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품으로 꼽는다...

형과 왕의 관료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여 설치한 집강소 등 혁명 전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입금을 '안전관'으로 정면에서 내세운다. 관소리와 마찬가지로 현실 비판 의식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감싸기 위해...

로'가 수집한 죄상 목록과 관군 자료 등을 근거로 '각 고을 수령을 비롯 한 뜻있는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다부어 혁명군에게 식량과 잠자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두테르테 마지막 국정연설장 향하는 시위대



28일 필리핀 케손시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 할 장소인 하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미얀마 시위대 "친군부 미얀마 선수단 쫓아내라"



26일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 국립경기장 밖에서 미얀마 국적의 시위대가 군부의 친군부 올림픽 선수단을 비난하며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설

신문 발행부수 정책

국내 유일의 신문 발행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 ABC 협회에서 그동안 발행 부수를 부풀려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광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ABC 협회의 부수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광고 제도에서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착한 밥상 20년간 3천원

20년 동안 한결 같이 백반 한 그릇에 3천원을 고수하는 착한 밥상가게가 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국은행 전주지점 건너편 전주문화원 옆에 자리한 <한교자율식당>이 그 주인공이다.

다. <한교>란 한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with a sailboat on waves and a sun/moon.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Includes a quote from the newspaper and a call to action for subscribers.